

西漢時期的 文學에 나타난 經學

신주석*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서한경학의 확립과 대표적 서한문인
3. 서한문학에 끼친 경학의 영향
4. 맺는 말

1. 들어가는 말

유가경전을 해석하고 논증하며 연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經學은 봉건 통치계층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국고대사회의 정치, 경제와 문화의 발전에 따라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출현하였고 중국봉건사회와 더불어 2000여 년의 유구한 세월을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경학은 봉건시대 중국사회의 어느 방면이든 영향을 끼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러나 중국역사를 총람해볼 때, 경학이 중국고대 정치, 경제, 문화의 흐름 속에서 진정으로 그 통치지위를 확립하고 사회생활 각 방면에 직접적으로 간여하면서 경학의 본질이 가장 순수하게 발휘된 시대로 西漢 時期만한 때가 없었다. 서한시기, 武帝는 公孫弘을 재상으로 채용한 것을 시작으로 유가경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로 삼았다. 많은 사람들이 경전 연구를 통해 재상의 자리에 올랐고 조정의 칙서나 群臣들의 上

* 서울여대 중문과 강사

奏文에도 경전을 인용하는 등 무엇이든 경전을 근거로 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또한 경학박사를 세우고 학교교육이나 인재등용평가에도 경학을 주요항목으로 채택하였다. 경학은 그 당시 사회와 정치 분야에 특히 깊숙이 간여하였는데 예를 들면 《春秋》로써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尚書·禹貢》으로治水하고, 《尚書·洪範》으로 변화를 관찰하고, 《詩經》으로 諫書를 삼았다. 경학은 봉건시대 사대부들의 의식형성에 핵심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정치나 사회생활 속의 많은 행위규범에 대해 구체적인 준칙이 되었다. 학술 문화사적으로 볼 때 경학은 다른 학술의 흥성을 선도하였고 또 그 발전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중국의 저명한 經學史 학자인 周予同은 “經今文學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후대 중국의 사회 철학과 정치철학이 빛났고, 經古文學의 출현으로 인해 후대 중국의 문자학과 고고학이 세워졌고, 宋學의 출현으로 인해 후대 중국의 형이상학과 윤리학이 이루어졌다.”¹⁾고 하였다. 서한은 經今文學이 창성한 시기이다. 武帝가 董仲舒의 건의를 받아들여 “百家를 몰아내고 오로지 유가의 학술만을 존중한다(罷黜百家, 獨尊儒術)”는 정책을 채택한 이후부터 今文經學은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근본이 되었다. 文帝는 一經博士를 세웠고, 武帝는 五經博士를 세웠다. 한대에는 모두 十四博士가 설치되었는데 모두 今文博士였다. 중요한 것은 經今文學이 시대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당시 사회적 환경과 역사적 조건에 적절히 부합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면부상할 수 있었다. 특히 《春秋公羊傳》은 經文의 아주 미묘한 표현 속에 깊은 뜻이 숨어 있다는 微言大義를 밝히는 일에 주력하였고, 大一統, 陰陽五行과 災異說 등의 사상은 통치자의 기호에 적극적으로 호응함에 따라 나날이 흥성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春秋公羊傳》은 여러 經傳 중에서 그 지위가 가장 확고해졌고 영향력 또한 가장 컸다. 한대의 경학이 당시의 정치사상과 문화에 끼친 영향을 살펴볼 때, 그 중심에는 今文經學이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公羊學’이었다.

形象으로 현실생활을 반영한 문학은 폐쇄적이거나 지엽적이지 않고, 시대 지

1) 周予同, 《周予同經學史論著選集》, (上海人民出版社, 1983) p.37: “因經今文學의 產生, 而侯中國의 社會哲學, 政治哲學以明; 因經古文學의 產生, 而侯中國의 文字學, 考古學以立; 因宋學의 產生, 而侯中國의 形而上學, 倫理學以成.”

향적이며 사회 역사적인 풍모를 갖추고 있다. 어느 시대든 문학은 필연적으로 시대 상황과 계층간의 삶의 모습을 작품 속에 반영한다. 한대의 문학도 당시 사회의 식 속에 통치이념으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경학사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주장을 철학가는 체계적인 논리로 설파하고 시인은 형상과 이미지로 표현하기 때문에 경학의 문학에 대한 영향은 다른 학술분야에 끼친 영향처럼 그 성과를 구체적이고 뚜렷한 모습으로 명확하게 드러내진 않았고, 문학 작품 속에 전하려는 의도를 은유적이고 함축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경학과 문학 사이의 미묘한 관계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다. 더욱이 하나의 특수한 역사시기라고 할 수 있는 서한시기의 경학과 문학 사이에 깊숙이 내재해있는 연관성에 관해서는 일찍이 충분하게 탐구한 적이 없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 초보적인 고찰을 하려고 한다.

2. 서한경학의 확립과 대표적 서한문인

서한 경학은 대체로 점진적 발전 시기, 정통지위 확립 시기, 흥성 시기 등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경학이 문학에 끼친 영향의 정도도 처음부터 그 모습을 확연하게 드러낸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농도를 짙게 해서 분명한 색채를 띠어가다가 최종적으로 經學家는 바로 文學家라는 발전 등식을 이루어냈다.

선진시대에 출현한 경학은 진시황의 분서갱유로 멸절의 위기를 겪다가 한왕조가 들어선 후 완만히 회복되었지만 한왕조 초기 몇 십년동안은 黃老思想이 사회적 흐름을 주도하였다. 이것은 秦末의 폭정, 수년간 지속된 농민 봉기와 項羽와 劉邦의 통일전쟁 그리고 漢高祖의 異姓諸侯 축출전쟁 등으로 한초 경제가 극도로 피폐한 상황에 처해있었기 때문이었다. 《漢書·食貨志》에는

한나라가 막 일어났을 때, 진왕조의 여러 弊政과 제후들의 반란에 직면하였고, 백성들은 일터를 잃고 큰 흉년이 들었다. 그 때 쌀 한 섬이 五千錢까지 올

라. 사람이 사람을 먹는 일까지 발생하고 죽은 자가 절반을 넘었다.²⁾

고 하였다. 이런 사회적 배경 아래에서 한초 통치자는 잠정적으로 법규를 간단히 약정하고 禁畝를 줄이는 無爲而治의 黃老思想을 봉건통치의 기본이념으로 삼아 대세의 흐름과 민심이 지향하는 바를 따르고자 하였다. 黃老思想의 신봉자인 蕭何, 曹參이 연이어 승상이 되었고 “無爲를 보강하여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간섭하지도 폐를 끼치지도 않는 것³⁾을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자 경학을 연구하는 유생들은 “文帝 시대에 다소 유생들이 등용되기도 하였지만文帝는 본래 刑名의 학설을 좋아했다. 景帝 시대에 와서는 유가들이 등용되지 않았고 또 竇太后 역시 黃老의 학설을 좋아하였으므로 여러 박사들은 형식적인 관직으로 대기할 뿐 승진하는 사람이 없었다.”⁴⁾ 비록 惠帝 때 ‘挾書律’이 폐지되었고文帝 때 이미 經學博士가 설치되었지만 景帝 때에 이르러서도 竇太后는 아직 유가의 저술을 “형벌을 담당하는 관리인 司空이 죄수에게 처벌하는 방편으로 야간에도 성을 쌓게 하는 城旦書⁵⁾ 정도라고 하였다. 이로 볼 때, 경학의 위치는 당시의 사상문화계에서 아직 黃老之學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 같다. 漢初 몇 십년동안의 문학 창작 중에서 경학 사상의 영향을 받은 작품은 상당히 미미하다. 鄒陽, 枚乘 등은 주로 戰國時代 諸子の 유풍을 계승하여 글을 지었고, 賈誼는 20세의 최연소 博士로 명성을 날렸고, 일찍이 《春秋左氏傳》의 편찬을 이야기하고 직접 주석을 단 古文經 《左傳》의 가장 빠른 계승자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그는 문학창작에 있어서 경학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보다는 차라리 黃老思想에 더 큰 영향을 받았고 屈原精神을 승계하여 작품 활동을 했다고 말하는 편이 훨씬 타당할 것이다. 그의 대표작인 《鵬鳥賦》는 中國賦史上 첫 번째로 문학적 역량을 갖춘 성숙한 哲理賦로 한초 문학 중 손꼽히는 역작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노장사상을 바탕으로 글을 엮어가고 있다. 그가 이 작품 속에서 도가의 만물은 영원하다고 한 주장은 순환하고 반복되

2) 《漢書·食貨志》：“漢興，接秦之敝，諸侯并起，民失作業，而大饑饉。凡米石五千，人相食，死者過半。”

3) 《漢書·刑法志》：“填以無爲，從民之欲，而不憂亂”

4) 《漢書·儒林傳》：“孝文時頗登用，然孝文本好刑名之言，乃至孝景，不任儒。竇太后又好黃老，故諸博士具官待問，未有進者。”

5) 《漢書·儒林傳》：“司空城旦書”

는 변화 속에서 바라본 관점에 불과하고 “덕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천명을 알면 근심이 없다(德人無累, 知命不憂)”고 한 것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난 후에 느낄 수 있는 달관으로 충만한 개념을 강조한 것이다. 賈誼 이후에는 淮南의 君臣들이 서한문학의 흐름을 주도하였다. 《漢書·藝文志》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淮南王은 82편의 부를 지었고, 淮南群臣들은 44편의 부를 지었으며 《淮南子》 1권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작품들은 대부분 亡失되었다. 우리는 단지 《淮南子》, 〈招隱士〉를 통해서 당시 문학과 학술의 성황 정도를 어렵게나마 엿볼 수 있다. 《淮南子》는 道家思想을 핵심으로 삼고 先秦의 諸家 학술을 섞어놓은 著述로 한초 학술이 전국시대 백가쟁명의 여음을 계승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招隱士〉에 이르면 내용이나 예술표현기법을 막론하고 屈原을 대표로 하는 초사문학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초 몇 십년간의 준비단계를 거치면서 경학은 점점 통치자의 기호에 영합하여 黃老之學이 차지했던 자리를 빼앗아 대치하게 되었다. 경학은 최종적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 지존의 위치를 차지하고 ‘大一統’ 국면을 형성하였다. 《漢書·董仲舒傳》에는

무제가 막 즉위했을 때, 魏其와 武安侯를 승상으로 삼고, 유가를 존중하였다. 동중서가 대책을 내어 공자의 유가 학술을 推學하고, 百家를 억누르고 물리쳤다.⁶⁾

고 하였다. 董仲舒는 春秋公羊學의 大儒이다. 그의 전력을 다한 제창과 적극적인 노력 아래 武帝는 결국 백가를 축출하고 《六經》을 현양하며 儒家가 독존의 지위에 오르도록 승인하였다. 建元5년에는 太學을 일으키고 五經博士를 설치하였다. 이때에 이르러서야 경학사상은 비로소 지배계층의 정식 통치사상으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武帝부터 宣帝까지 몇 십년간 최고 권력자인 황제는 경학을 단지 일종의 통치책략으로 간주하고 士人들을 다루고 통제하는 방법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사실 그들 가슴 속 깊은 곳에

6) 《漢書·董仲舒傳》：“自武帝初立，魏其，武安侯爲相而隆儒矣。及仲舒對策，推明孔氏，抑黜百家。”

는 진심으로 유학을 숭배하고자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이른바 “겉으로는 유학의 대의명분을 내세우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법가의 사상과 방법론을 신봉하는(外儒內法)” 정책은 이 역사적 격변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통치 기술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宣帝는 아들을 간곡하게 타이르며 “한왕조에는 본래의 규장제도가 있고, 그 중에는 독점적으로 군림하는 제도도 뒤섞여 있다.”⁷⁾ 고 하였고, 유학을 좋아하는 태자 奭을 폐위시키고 사물을 명확하게 살필 줄 알고 법가를 좋아하는 淮陽王을 태자로 옹립하려고 하였다. 이처럼 당시의 제왕들은 형식적으로는 유학을 독존의 지위에 올려놓았지만 그 내면에는 법가를 선호하고 받들려는 심리적 성향이 강하게 남아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학은 점차적으로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방면에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었고, 이 시기 문학가들도 많게 든 적게 든 경학사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당시의 통치세력은 본래부터 그 “漢家制度”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학사상의 영향은 형식적인 방면에서만 구체적으로 부각 되었을 뿐 진정으로 사람들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정신적인 자각을 일깨우진 못했다. 이 시기의 문학가들은 경학사상의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몇몇 방면에서 그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독특한 개성과 사상을 견지할 수 있었다. 여기서 당시 가장 위대한 문학가인 司馬遷을 예로 들어 이런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사마천이 경전에 정통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는 일찍부터 孔安國, 董仲舒 등 經學大師를 잇따라 스승으로 모셨다. 그 부친 司馬談은 《易經》에 일가견이 있었고 사마천의 의식형성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史記》를 보면 孔子, 董仲舒 등 儒學大師의 어록은 종종 사마천이 시비를 가늠하고 사리를 판단하는 표준으로 인용하기도 하였다. 《史記》는 유가의 정통인 《六經》에서 많은 소재를 취합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春秋筆法’을 직접적으로 본받아 작품 완성에 반영하였다. 경학사상이 《史記》전체의 사상체계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문학적인 방면에서 볼 때도 경학사상의 영향은 상당히 현저

7) 《漢書·元帝紀》：“漢家自有制度，本以霸王道雜之”

하게 나타난다.

먼저, 사마천은 위대한 저서인 《史記》를 창작할 때, 周公과 孔子의 숭고한 정신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계승하여 자아의식을 높였다. 그는 《史記·太史公自序》에서

선친께서 말씀하시기를 周公이 죽고 난 뒤 500년 만에 공자가 태어났다. 그리고 공자가 죽고 난 뒤 오늘에 이르기까지 500년이 지났으니, 다시 밝은 세상을 계승하고 《易傳》을 정정하고, 《春秋》를 계속하고, 《詩》, 《書》, 《禮》, 《樂》의 근본을 구명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겠지 라고 하셨는데, 아버지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았던가! 아버지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8)

라고 하였다. 이것은 그야말로 공자가 서거한지 500년 후에 또 한 명의 사람이 스스로를 공자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 다음 사마천은 많은 인물 형상을 살아있는 것처럼 생동적으로 묘사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역사 서술을 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작가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과 애증을 반영하여 독특하고 참신한 이미지로 형상화하였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史記》는 魯迅으로부터 “史家の絶唱이며 운율이 없는 〈離騷〉”9)라는 찬사를 들었다. 이런 역사 서술의 글자와 행간 사이에는 작가 자신의 주관적인 가치관과 사사로운 애증의 정서가 용해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春秋筆法’이다. 당시 《史記》의 독특한 창작 방법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個別字를 사용하여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한정된 수법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여러 인물의 모습을 선명하게 형상화하는 창작방법을 채택하여 완벽하게 구현해냈는데 《史記》의 문학적 공헌이 있다. 문장을 짓고 인물을 형상화하는 행간 속에 숨어있는 찬탄을 금치 못할 불후의 풍자예술은 물론 작가의 비범한 담력과 식견 그리고 불우하고 비참했던 자신의 처지에서 승화시킨 것이지만, 공자가 《春

8) 《史記·太史公自序》：“先人有言，自周公卒五百歲而有孔子，孔子卒後至于今五百歲，有能紹明世，正《易傳》，繼《春秋》，本《詩》，《書》，《禮》，《樂》之際，意在斯乎，意在斯乎！”

9) 魯迅, 《漢文學史綱要》, (上海古籍出版社, 2005) p.75: “史家之絶唱, 無韻之〈離騷〉”

秋》를 지을 때 “옛날 隱公 과 桓公 사이는 기록이 분명한데, 자기와 같은 시대인 定公과 哀公의 일은 기록이 애매하고 분명하지 못한”¹⁰⁾ 문장기술도 그에게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春秋》의 “드러난 사실을 추측하여 은밀한 것에 도달하려는”¹¹⁾ 함축기법은 사마천이 당대의 많은 인물들을 두루 묘사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결론적으로 《史記》가 문학적으로 이룩한 거대한 성과는 어떠한 뿌리나 원천 없이 하루아침에 거둔 것이 아니라 前代에서 이룬 성취를 기초로 삼아 심화하고 확장해서 발전시킨 것이었다. 유가의 經傳은 《史記》속 인물형상의 묘사와 언어예술의 운용, 결구의 처리 방식 등에 대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사마천의 위대함은 당시 성행하던 경학사상에 얽매이거나 예속 당하지 않고 자신만의 독특한 창작 개성을 곳곳에 견지했다는 데 있다. 이런 창작개성의 표현은 유가의 전통적인 중용의 미덕과는 상대적인 ‘愛憎’의 심미풍격을 《史記》속에 발휘한 것으로 ‘溫柔敦厚’의 詩教와는 서로 모순되는 격앙되고 자유분방한 ‘怨’과 ‘憤’의 정서를 도처에 나타내 보였다.

그러나 사마천 이후 서한문학가 중에서 다시는 이처럼 위대하고 독특한 개성을 지닌 인물은 출현하지 않았다. 주로 부귀공명과 출세를 위한 용도로 활용되던 崇儒 관념이 최고통치자인 “元帝가 유학을 좋아하는”¹²⁾ 시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깊이 있게 믿을 수 있는 대상으로 바뀌게 되었고, 유학은 진정으로 독존의 지위를 확립하게 된다. 이때 사람들이 중시하게 된 것은 복잡하고 기세가 웅대한 公羊學이 아니라 溫柔敦厚한 詩學이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서한왕조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던 시기로 이런 사회현실을 반영했던 당시문학은 武, 宣帝와 같은 전성기 때에 생산된 화려하며 거침없고 기세 드높은 작품들을 더 이상 생산해낼 수 없었다. 이 시기의 문학가들은 조금도 예외 없이 경학과는 떼어 놓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경학사상의 굴레와 속박을 뛰어 넘어 문학작품에 새로운 이미지를 불어넣을 방도를 찾는 사람도 없었다. 당시 문단을 대표하는 인물은 劉向, 劉歆, 揚雄 등인데 모두 經學家 겸 文學家였다. 이 시기 가장 유명한 문학가였던

10) 《史記·匈奴列傳》：“隱、桓之間則章，至定、哀之際則微”

11) 《史記·司馬相如列傳》：“推見至隱”

12) 《漢書·儒林傳》：“元帝好儒”

양웅을 예로 보면, 그의 저작 중에서 《太玄》은 《周易》을 모방하였고, 《法言》은 《論語》를 모방하여 지었다. 일반 순문학 창작에 있어서도 경학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 작품을 보면 곳곳에 이러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다. 그가 여러抒情賦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감정을 토로한 부분을 보면 문학가이기에 앞서 한 儒士로서의 정감을 더 중요시 했던 것 같다. 양웅이 〈甘泉賦〉, 〈長揚賦〉, 〈羽獵賦〉 등의 작품에서 황제의 교만하고 사치스럽고 방탕 무도한 생활을 풍자한 것은 《詩經》이 가지고 있는 善惡을 판단하고 풍유하는 정신을 충실하게 계승한 결과였다. 더욱이 그는 경전에 나오는 많은 成語들을 전하는 그대로 답습하여 작품에 전용하였다. 양웅에게 있어서 경학과 문학은 서로 마음이 맞아 잘 융합되는 밀접한 관계였기 때문에 굳이 피차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존재였던 것이다.

3. 서한문학에 끼친 경학의 영향

지금까지 격동의 역사시기에 서학경학과 문학가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경학과 서한문학의 유형과 특징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문제를 확실하게 살펴보기 위해 우선 서한문학의 주요유형에 무엇이 있는지 분명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시가는 先秦시기에 휘황찬란한 족적을 남겼지만 서한 때는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다. 진흙 속에 피어난 연꽃과 같은 한악부민가는 典籍에 수록됐거나 다른 방식으로 전해져오는 것을 막론하고 서한작품은 매우 희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한시기에 文學史적으로 주목받는 장르는 散文과 賦이다. 산문과 부는 서한시기 대표적인 문학 양식으로 기세가 힘차고 웅장하며 결구가 방대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산문과 부가 이런 특징을 갖추게 된 것은 물론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 가장 큰 원인은 두말할 필요 없이 경학의 영향 때문이었다.

《公羊傳》은 《春秋》의 “王正月”을 해석할 때, 첫머리에 요지를 밝히며 “무

엇 때문에 왕정월이라고 했는가? 大一統 때문이다(何言乎王正月?大一統也)”라고 하였다. 大一統은 중국의 고대사회에 있어 宗法의 근간이 된 것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방면의 제도적 통일을 주장하는 사상이다. 동중서는 한발 더 나아가 “《春秋》의 大一統 관념은 천지의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통하는 이치”¹³⁾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한왕조는 진을 계승한 또 하나의 통일된 중앙집권적인 대제국이였다. 진왕조가 짧은 통치기간을 마감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후, 한왕조 초기에는 異姓諸侯들이 주류를 형성했지만 차츰 同姓諸侯들로 통치 권력의 구조가 바뀌면서 반란도 발생했었다. 한왕조가 실질적으로 전국을 완전하게 통치하게 된 때는 바로 景帝가 七王의 亂을 평정하고 난 후부터이다. 그러므로 《春秋》 大一統은 바로 통치자가 정치적으로 통일을 이룩하고 사회가 안정되면서 중시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관점은 문학상에도 반영되었는데 제왕의 대업을 윤색하고(潤色鴻業), 화려하고 과장된 문장의 수식으로 조정과 중앙집권을 칭송한 漢大賦와 당시 인물들의 초상을 傳記로 승화시킨 휘황찬란한 걸작인 《史記》가 또한 그렇다. “전쟁이 쉬지 않고 일어나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진”¹⁴⁾ 시대에 사람들은 정치적인 억압과 경제적인 곤궁에서 벗어나길 기원하고 大一統을 갈망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大一統 사상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아래서 필연적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러므로 大一統을 노래한 문학작품은 자연히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司馬相如같은 대작가에 대해 긍정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내릴 필요가 있다.

《史記·司馬相如列傳》에 보면 사마상여는 어릴 때부터 책보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그가 藺相如의 됃됨이를 흠모하여 이름을 상여로 바꾼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가 본 책들이 모두 經傳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가 임종 전에 지은 한 권의 책에서 封禪에 관한 일을 중요하게 다룬 것으로 볼 때 그가 경전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현존하는 사마상여의 가장 훌륭한 동시에 西漢大賦를 대표하는 작품은 〈子虛賦〉와 〈上林賦〉이다. 〈子虛賦〉는 子虛와 烏有 선생의 대화를 통해 齊와 楚를 맞대어 비교하고 楚의 “유희의 즐거움이라든지苑

13) 《漢書·儒林傳》：“《春秋》大一統者，天地之常經，古今之通誼也。”

14) 《史記·秦始皇本紀》：“兵革不休，士民罷弊”

囿의 크기(遊戱之樂, 苑囿之大)가 제후의 법도에 맞지 않음을 비난하였다. 〈上林賦〉는 亡是公의 말을 가정하여 上林苑의 규모가 광대하고 웅장하며, 수렵생활이 화려하고 장대함을 미사여구를 동원해 거침없이 묘사하였다. 이 두 작품을 연결시켜 보면 天子의 위세는 확대 과장하고 제후의 意思是 축소 억압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上林賦〉는 武帝 때 지은 작품이다. 그 때 대일통의 관념은 경학 저술 속에 자주 등장할 뿐만 아니라 이미 당시의 정치와 사회 등 다방면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는 실체가 되었다. 작가들의 천자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체제와 태평성세에 대해 歌功頌德하는 사상적 근원도 경학에 기초한 것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사마상여의 작품 속에 나타난 모든 현상을 포용하는 기개와 화려한 수식과 과장, 거침없는 묘사 등은 바로 강성하고 옥일승천하던 漢帝國의 기상을 생동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東漢의 公羊學 大家인 何休는 《公羊傳》에는 “常道가 아닌 異議와 괴이한 논의”¹⁵⁾가 많다고 했는데 이는 그 특징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로 볼 때, 《公羊傳》이 한대문학과 한대문화에 나타난 낭만적인 특질에 대해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春秋》三傳 중에서 《左傳》은 古文經學으로 漢 初期에는 아직 민간에서만 유전되고 있었다. 《穀梁傳》은 魯學으로 매우 신중하며 과장이 많지 않았고, 宣帝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學官이 세워졌다. 齊學인 《公羊傳》은 學官이 일찍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영향력 또한 컸다. 중국 고대문화의 흐름을 살펴보면 齊와 楚의 문화는 한 계통이었다. 서한문학의 직접적인 원천은 바로 屈原과 宋玉의 楚辭이다. 서한문학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굴원과 송옥으로 대표되는 낭만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齊學인 《公羊傳》은 이런 낭만정신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왜냐하면 齊문화와 楚문화는 근본적으로 같은 뿌리에서 자라났고 상상력 또한 매우 풍부했기 때문이다. 齊學의 대가인 鄒衍의 五德終始說은 公羊學의 天人感應과 陰陽災異이론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公羊學 중에 보이는 웅대하며 常道에서 벗어나지 않고, 풍부한 상상력이 넘쳐나는 정신의 본질은 바로 서한문학

15) 何休, 《春秋公羊解詁》, (上海古籍出版社 1988) p.138: “非常異議可怪之論”

중의 낭만정조와 일맥상통한다. 漢大賦 속에 나타난 “우주를 포괄하고 만물을 두루 살피는”¹⁶⁾ 기개 그리고 천세와 삼라만상에 대해 전력을 다해 호언하고 과장하여 서술한 것을 비롯하여 “산과 바다의 기세와 형상이나 궁전의 짜임새와 기품을 묘사할 때, 우뚝우뚝 솟아 있고 웅대하고도 화려하며 휘황찬란하다는 표현”¹⁷⁾은 바로 번창하여 다채롭고 생동감으로 충만한 적극적인 낭만주의 정신의 구현이 아니던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왜 서한문학이 武, 宣帝의 성세에서 元, 成帝 이후 모방만을 추구하는 시기로 넘어가고, 동시에 경학도 《公羊傳》을 중시하다가 《穀梁傳》과 詩教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서한이 세운 五經博士 중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것은 詩經博士였고 문학작품 중에서는 오직 《詩經》만이 신성시되었다. 서한 문인의 창작에 있어서 시가는 마치 황무지와 같은 영역이었다. 《漢書·藝文志》에 “歌詩二十八家, 三百一十四篇”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지금은 대부분 전해지지 않는다. 《詩經》의 정교하고 아름다운 四言 形式을 한대에 진정으로 계승한 사람은 없는 듯하다. 《漢書·韋賢傳》 중에는 韋賢이 四言詩를 지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시가는 선조의 遺德을 설명하고 자손을 훈계하는 내용으로 지극히 평범하고 예술적으로도 질박하기만 할뿐 문채도 없었다. 《詩經》이 서한문학에 끼친 영향은 직접적으로 四言詩의 형식상에 구현된 것이 아니라 주로 시가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은연중에 감화작용을 일으키는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한대의 대표적 문학양식인 부의 기원문제에 관해 역대학자들의 견해는 일치되지 못하고 분분하지만, 부와 《詩經》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 한 가지만은 모두 부인하지 않았다. 부라는 용어 자체가 《詩經》의 六義에서부터 연유한 것이어서 班固는 《漢書·藝文志》에서

傳에 “노래하지 않고 읊는 것을 부라고 한다. 높은 데에 올라가 부를 잘하면 大夫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춘추 이후에 周의 도가 점차 무너졌다. 예를 갖추어 사절을 보내고 시가를 읊는 일이 여러 나라에서 행해지지 않았다.

16) 葛洪, 《西京雜記》, (貴州人民出版社, 1995) p.78 : “包括宇宙, 總覽萬物”

17) 劉勰, 范文瀾主, 《文心雕龍注》, (開明書局, 1989) p.169: “氣貌山海, 體勢宮殿, 嵯峨構業, 熠燿焜煌之狀”

《詩經》을 배우는 인사는 버림을 받아 서민이 되었다. 그리하여 현인은 뜻을 잃고 부를 지었다.¹⁸⁾

고 하였고 또 〈兩都賦序〉에서

부라는 것은 옛 《詩經》의 유파이다.¹⁹⁾

라고 하였다. 劉勰은

《詩經》에는 六義가 있는데, 그 둘째를 부라고 한다. 부란 펴서 벌이는 것이다. 즉 문체를 펴서 늘어놓고, 사물을 체현하여 뜻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니 부라는 것은 《詩經》의 시인들에게서 생명을 받아 가지고, 〈楚辭〉에 이르러 그 세계를 개척한 셈이다.²⁰⁾

라고 하였다. 清代 章學誠은

옛날 부를 짓는 사람들은 《詩經》과 〈騷體〉를 근본으로 했고, 전국시대 제자들이 드나들었다.²¹⁾

고 더욱 분명하게 지적하였다.

위에 기술한 내용들은 모두 《詩經》이 부의 원류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漢大賦 중에서 歌功頌德을 중심으로 종교, 궁전건축, 수렵, 조회 장면 등을 묘사한 작품들의 선례를 〈雅〉와 〈頌〉에서 찾을 수 있다. 단지 다른 점은 漢大賦가 언어의 수식과 내용에 있어서 《詩經》보다 더 풍부하고 세밀하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詩經》이 한대문학에 끼친 영향은 비할 데 없이 지대했다. 漢大賦의

18) 《漢書·藝文志》：“傳曰：‘不歌而誦謂之賦，登高能賦，可以爲大夫。’……春秋之後，周道寢衰，聘問歌詠，不行于列國。學《詩》之士，逸在布衣，而賢人失志之賦作矣。”

19) 班固, 〈兩都賦序〉：“賦者，古《詩》之流也。”

20) 劉勰, 范文瀾主, 《文心雕龍注》, (開明書局, 1989) p.115: “《詩》有六義, 其二曰賦, 賦者, 鋪也, 鋪采摛文, 體物寫志也. ……然賦也者, 受命于詩人, 拓宇于楚辭也.”

21) 章學誠, 《校讎通義》, (中華書局, 1978) p.47: “古之賦家者流, 原本《詩》, 《騷》, 出入戰國諸子.”

발전과정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풍유의식 또한 《詩經》에서 유래한 것이다.

바로 사마천은 《史記·司馬相如列傳》 중에서

〈大雅〉는 王公과 大人을 이야기해서 백성들에게 덕이 미치게 하고, 〈小雅〉는 小人의 득실을 풍자하여 그 영향이 위에까지 미치게 한 것이다. 때문에 비록 말의 표현 양식은 서로 다르지만 덕에 합치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相如의 글은 비록 공허한 말과 분방한 설명이 많지만, 그 주요한 뜻은 절약과 검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詩經》의 풍간과 어찌 다르겠는가?²²⁾

라고 하였다. 사실상 표현이 매우 완곡하고 변화가 많은 풍유의식은 漢大賦 초기의 역작인 枚乘의 〈七發〉에서 이미 확립되었다. 이 작품은 奇聲, 奇味, 騎射, 游宴, 校獵, 觀濤 등 여섯 가지 일을 서술한 것으로 기세가 장엄하고 문장이 간단명료하며 재치 있는 말들로 넘쳐난다. 그가 이 글을 쓴 목적은 諸侯 子弟들을 풍자해서 그들이 부패하고 향락에 빠진 생활에서 벗어나 正道로 돌아오도록 인도하려는 것이었다. 司馬相如의 〈子虛賦〉와 〈上林賦〉는 雲夢澤과 上林苑에서의 호화로운 유람과 웅장한 수렵 생활을 묘사하고 마지막에는 공명정대한 정치와 근검절약의 중요성을 제창하였다. 揚雄의 〈甘泉賦〉, 〈羽獵賦〉, 〈河東賦〉, 〈長揚賦〉 등은 직접 成帝가 볼 수 있도록 반쳐졌다. 양웅은 이런 부를 통해 탐욕과 사치에 빠져 전횡을 일삼는 우둔한 군주인 成帝를 적절하게 풍자하였다. 그러나 漢大賦가 실제로 특정 계층만 향유하는 궁정문학이었기 때문에 그 독자 역시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는 황제 본인뿐인 경우도 있었다. 이것이 바로 漢大賦의 풍유의식이 단지 함축적이고 지나치게 완곡하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동시에 漢大賦 작가들이 문장의 화려한 수식과 과장, 풍부하고 다채로운 서술에만 지나치게 몰두하였기 때문에 본래부터 미약했던 풍유의식은 형식미의 틀 속에 더욱더 매몰되어 버렸다. 반고는 《漢書·藝文志》에서 “다투어 화려하고 과장된 문사만을 지어 그 풍유의 뜻이 없어졌다.”²³⁾ 고 하였다. 그러므로 漢賦의 풍유의식은 향

22) 《史記·司馬相如列傳》：“〈大雅〉言王公大人，而德遺黎庶。〈小雅〉譏小己之得失，其流及上。所言雖殊，其合德一也。相如雖多虛辭監說，然要其歸引之于節儉，此亦《詩》之風諫何異？”

23) 《漢書·藝文志》：“競爲侈麗宏衍之詞，沒其諷諭之義。”

상 독자의 이해와 지지를 얻지 못했다. 예로 司馬相如의 〈大人賦〉는 원래 한무제가 神仙을 과도하게 추앙하는 모습을 諷諫한 것인데도 무제가 보고 도리어 “두둥실 날아 구름 위로 올라간 듯하고 마음은 천지 사이에서 자유로이 노니는 것 같다”²⁴⁾고 좋아하여 본래의 경계하고 깨닫게 하려는 의미는 퇴색되어 버렸다. 그래서 말년에 揚雄은 “어떤 사람이 그에게 ‘부는 풍자할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그는 ‘풍자요? 풍자할 수 있으면 그만이지요. 하지만 풍자는커녕 권고조차 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²⁵⁾라고 하였다.

진정으로 〈國風〉의 가치 있는 풍자 전통을 계승하고 당시의 사회 현실을 진솔하게 반영한 작품은 “슬픔과 기쁨으로 느낀 바를 일에 따라 드러낸”²⁶⁾ 漢樂府民歌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漢書·藝文志》에 수록된 작품 수는 적지 않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것 중에 西漢시기의 약부민가라고 확정할 수 있는 작품은 극히 드물다. 그러나 이런 소량의 작품 속에 나타난 《詩經》의 현실주의 우량전통의 영향은 漢大賦보다 훨씬 깊다. 〈戰城南〉을 살펴보자

戰城南,	성 남쪽에서 싸우다
死郭北	성곽 북쪽에서 죽었네
野死不葬烏可食	들판에서 죽은 채 장사 지내지 못하니 까마귀 밥 되겠지
爲我謂烏:	내 대신 까마귀에게 말해다오
且爲客豪!	그래도 죽은 나그네 위하여 곡이라도 해 주게
野死諒不葬	들판에서 죽은 채 장사 지내지 않으니
腐肉安能去子逃!	썩은 고기 어찌 그대 밥 면할 수 있겠는가
水深激激	물은 깊어 맑고
蒲葦冥冥	창포와 갈대 무성한 속에
擣騎戰鬥死	날쌔 기병 싸우다 죽으니
驚馬徘徊鳴	우둔한 말은 배회하며 울고 있네
梁築室,	집 짓는 토목공사에
何以南梁何北?	무엇 때문에 남쪽 북쪽에서 장정을 잡아 오는가
禾黍不獲君何食?	곡식 거두지 못하면 임금인들 무얼 먹을 건가
願爲忠臣安可得?	충신이 되고자 하여도 어찌 될 수 있겠는가……

24) 《漢書·司馬相如傳》: “飄飄有陵雲氣游天地之閑意”

25) 揚雄, 《法言》, (山東友誼出版社, 1988) p.153: “或曰‘賦可以諷乎?’曰‘諷乎! 諷則已; 不已, 吾恐不免于勸也.’”

26) 《漢書·藝文志》: “感于哀樂, 緣事而發”

이 시가의 정조와 《詩經·唐風·鴇羽》 중의 “나라 일에 쉴 틈이 없어, 기장도 심지 못하네. 부모님은 누굴 믿고 살아가실까. 끝없이 푸른 저 하늘이시여, 언제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²⁷⁾의 안타까움과 《詩經·小雅·何草不黃》 중 “무소도 아니고 범도 아닌데, 황량한 들판을 헤매네. 서럽다 우리 군사여, 아침저녁 틈도 아니 주네.”²⁸⁾의 참담함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듯해서 더욱 悲壯하다. 이런 시가야말로 한대문학 중에서 백성들의 진실한 삶의 모습에 가장 근접했다고 할 수 있다.

4. 맺는 말

결론적으로 經學은 西漢 봉건통치계층의 의식형성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西漢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방면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서한문학의 여러 방면에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 서한문학의 외재하는 형식이나 내재하는 사상적 특성을 막론하고 서한 경학이 끼친 자취와 흔적이 나타나지 않은 곳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서한문학에 관한 연구과정에서 결코 서학경학이라는 요소를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둘 사이에 연결된 밀접한 관계를 잘 파악해야만 진정으로 서한문학의 본모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7) 《詩經·唐風·鴇羽》：“王事靡盬，不能藝稷黍。父母何怙，悠悠蒼天，曷其有所”

28) 《詩經·小雅·何草不黃》：“匪兕匪虎，率彼曠野。哀我征夫，朝夕不暇”

<參考文獻>

- 班固, 《漢書》, 中華書局, 1962.
司馬遷, 《史記》, 中華書局, 1982.
林劍鳴, 《秦漢史》, 上海人民出版社, 1989.
揚雄, 《法言》, 山東友誼出版社, 1988.
何休, 《春秋公羊解詁》, 上海古籍出版社, 1988.
劉勰, 范文瀾注, 《文心雕龍注》, 開明書局, 1989.
葛洪, 《西京雜記》, 貴州人民出版社, 1995.
章學誠, 《校讎通義》, 中華書局, 1978.
魯迅, 《漢文學史綱要》, 上海古籍出版社, 2005.
周予同, 《周予同經學史論著選集》, 上海人民出版社, 1983.
金春峰, 《漢代思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6.
費振剛等, 《全漢賦》, 北京大學出版社, 1993.
萬光治, 《漢賦通論》, 巴蜀書社, 1989.
劉永濟, 《十四朝文學史要略》, 百花文藝出版社, 1975.
聶石樵, 《先秦兩漢文學史稿》,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4.
童慶炳, 《文體與文體的創造》, 雲南人民出版社, 1995.
游國恩等編, 《中國文學史》, 人民文學出版社, 1984.
劉大杰, 《中國文學發展史》, 上海古籍出版社, 1982.
《兩漢文學史參考資料》, 中華書局, 1964.
허세욱, 《중국고대문학사》, 법문사, 1986.
김학주, 《한대의 문학과 부》, 신아사, 2002.

<中文提要>

作為形象反映社會生活的文學, 從來就不是一種孤立的現象, 而是一種社會歷史現象. 任何時代的文學, 都必然要打上時代和階層的烙印. 因此, 西漢文學必然也會與當時在社會意識形態中占統治地位的經學思想有着極其密切的關係.

作為解釋, 闡述和研究儒學經傳為主要內容的經學, 是為適應封建統治階層的需要, 隨着中國古代社會經濟, 政治和文化的發展而產生的, 并伴隨着中國封建社會連綿不絕, 長達二千餘年之

久可以說，經學思想一直是中國古代社會的統治思想。因此，要研究封建時代中國文化的任何一方面，都離不開對經學的研究。然而，縱觀中國歷史，經學思想在中國古代政治，經濟，文化思想中真正確立其統治地位，經學思想對社會生活各個方面的干預最為直接，經學思想最近純正的時代，則莫過於西漢。

西漢經學思想對致經歷了逐步發展，確立正統地位，臻于極盛這樣三個階段。因而，其對文學的影響，也經歷了一個由不太明顯，逐漸趨向明朗，最終形成了經學家即文學家的發展歷程。

在先秦會顯得輝煌燦爛的詩歌，在西漢則大大地沈寂了。漢樂府民歌無論是典籍記載的，還是經由其他方式流傳下來的，能確認為西漢作品的也非常少。給西漢在文學史上以地位的，是漢文和漢賦。這就是西漢文學的主要類型。而這兩種類型具有一凱共同的特質，便是氣勢的雄渾與結構的宏大。西漢文學這種類型和特質的形成，原因當然是多方面的，而經學的影響，無疑是其中重要的原因之一。

經學是西漢封建統治階層的意識形態，是西漢政治，經濟，文化的理論基礎。因而它對西漢文學的各個方面，都有着直接或間接的影響。無論是西漢文學的外在形式，還是西漢文學的內在精神，無不顯示着西漢經學思想的滲透與滋養。因此，我們在對西漢文學的研究過程中，決不能忽略西漢經學的因素。在這種意義上，我們可以說，只有揭示二者的內在聯系，才能真正把握漢代文學的本質。

關鍵詞： 西漢，經學，史記，賦，諷諭

이 논문은 2008년 11월 21일에 접수되어 2008년 12월 7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08년 12월 15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